

국제 유가 불안에 지역 물가 '고공행진'

호남지방데이터터칭 '4월 소비자물가' 발표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호남지방데이터터칭이 발표한 '2026년 4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0.66(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4년 7월(2.9%) 이후 1년 9개월(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남 전년비 2.7% ↑ 21개월만 최대 상승

광주도 2.3% ↑ ...최근 5개월 내 최고치

석유·돼지고기·쌀 등 생활물가 부담 가중

수치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생활물가지수도 지난해보다 3.4% 오르며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목적별로는 교통이 10.7%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음식·숙박(2.3%), 기타 상품

·서비스(4.6%), 주택·수도·전기·연료(1.9%) 등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배(-33.9%), 배추(-20.6%), 무(-35.1%)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은 크게 하락했지만 국산 쇠고기(8.5%), 돼지고기(7.4%), 쌀(14.1%) 등이 오르면서 농축수산물물은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했다.

특히 국제 유가 불안 여파로 휘발유(19.6%), 경유(30.2%), 등유(18.7%)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업제품 물가가 전반적으로 4.4% 상승한 것이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보험서비스료(13.4%), 공

동주택관리비(5.4%)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 올라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광주지역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4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해 지난해 11월(2.3%)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도 지난해보다 2.8% 상승해 체감 물가 부담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목적별로는 교통(10.0%), 음식·숙박(2.9%), 주택·수도·전기·연료(1.8%) 등이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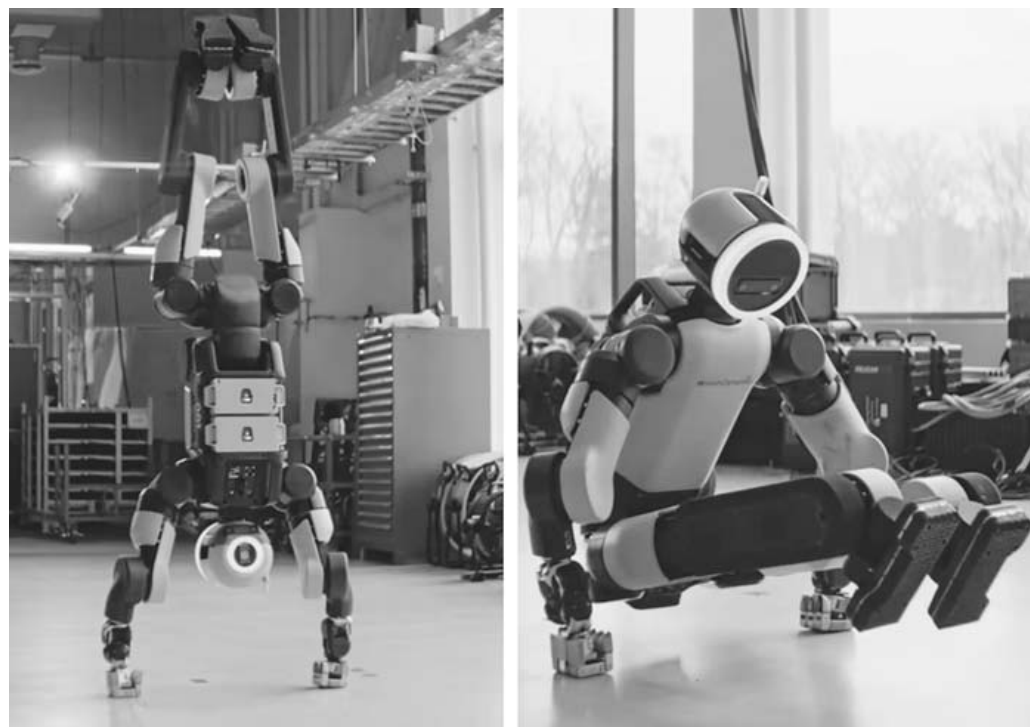
품목 성질별로는 돼지고기(11.3%), 쌀(16.2%), 수입 쇠고기(11.9%) 등이 크게 올랐지만 배추(-

33.6%), 국산 쇠고기(-4.6%), 양파(-30.7%) 등이 하락해 농축수산물물은 전년동월대비 2.5% 하락했다.

광주역시 국제유가상승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휘발유(21.1%), 경유(30.8%), 컴퓨터(19.4%) 등이 크게 오르며 공업제품 물가가 전반적으로 3.6% 상승했다.

서비스 부문 역시 택시료(12.4%), 외래진료비(2.0%), 사립대 납입금(3.1%), 보험서비스료(13.4%), 공동주택관리비(4.7%) 등이 일제히 오르며 전년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태호 기자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톤다이내믹스가 5월(현지시간) 유튜브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의 작동 영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물구나무도 척척... '아틀라스' 기계체조 시연

보스톤다이내믹스, 작동 영상 공개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톤다이내믹스가 5일(현지시간) 유튜브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의 작동 영상을 공개했다.

아틀라스는 제조 현장에 투입되는 '개발형 모델'과 핵심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연구형 모델'로 나뉜다. 개발형 모델의 작동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틀라스가 실제 현장에서 무거운 물체를 들고 이동하거나 비정형 자세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영상에서 아틀라스는 제자리에서 물구나무 자세를 취한 뒤 두 손으로 전신을 지지한

체 몸을 수평에 가깝게 유지했다.

몸을 'L'자 모양으로 만드는 고난도 기계체조 동작도 선보였다. 이후 몸을 위로 뒤집어 정자세로 일어섰다.

이번 동작에는 강화학습 기반의 전신 제어 기술이 적용됐다. 로봇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과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움직임과 균형 전략을 학습하는 접근법이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현대차그룹 메타플랫폼 아메리카(HMGMA)에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을 투입하고 공정 단위별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공장 HMGMA에 투입하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으로 작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한전KPS, 윤리경영 실천 2년 연속 '우수상'

제6회 우수기관 공모전 수상기관 선정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지난 달 30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제6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우수상(윤경포럼 대표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고 산업정책연구원(IPSI)이 주관하는 윤경포럼에서 주최한 이번 시상식에서 한전KPS는 윤리경영 제도와 시스템의 체계적 구현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실제 한전KPS는 '투명하고 배려하는 경영'을 통한 최고 수준 윤리경영 구축'을 비전으로 윤리경영 표준모델 전략방향에 따른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 체계 구축에 전사 역량을 집중해왔다.

재정경제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윤리경영 체계에 적극 접목시켜 윤리의 날 지정(6월2일), 윤만추(윤리와 만남 추구) 시진III, CEO와 함께하는 윤리자킴이 컴퍼런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통해 명확한 방향성 있는 윤리경영 체계를 구현하고 전직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윤리경영 실천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PS는 앞으로도 정부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정책과 부합하는 윤리경영 활동 강화를 통

해 선제적인 윤리위험 예방과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흥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윤리경영 제도 혁신과 실천력 강화를 통해 전방위적 윤리정착을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올리브영 잘 나가네'...전남지역 'K-뷰티' 특수

황금연휴 기간 여수 크루즈 입항에

외국인 매출 1년전보다 654% 폭증

한국과 중국, 일본 연휴가 겹친 '황금연휴' 기간 대전, 광주, 전남 여수 등 비수도권의 올리브영 거점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과 흥대 등 서울 주요 상권에 집중됐던 케이(K)-뷰티 수요가 올리브영의 전국 오프라

인 네트워크를 따라 지방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6일 CJ올리브영이 텍스리핀 전문업체 글로벌 텍스프리(GTF)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올리브영 매장을 찾은 외국인 매출은 직전 주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일본 관광객은 74%, 중국 관광객은 35% 각각 늘었다.

서울 명동·흥대 등 주요 관광상권 매장에서 개점 전부터 대기 줄이 생기는 '오픈런' 행렬이

생겼고, 각 지역에서도 거점 매장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전남 지역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이 전주 대비 223% 증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54% 폭증했다.

여수에 국제크루즈 입항이 늘어나면서 전남 지역을 찾는 중국·일본 국적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황금연휴 기간 대전광역시의 '대전 타운'(69%), 광주광역시의 '광주 타운'(63%), 청주시의 '청주 타운'(43%) 등 주요 거점 매장의 외국인 매출이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할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